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클래스' 50만대 팔렸다

1979년 출시 후 SUV 시장 독보적 존재감...예술작품 등으로 발전 순수 전기차 내년부터 생산...전기 모터 4개 강력한 주행성능 유지

메르세데스-벤츠의 오프로드를 대표하며 'G바겐' (G-Wagen)으로도 불리는 'G-클래스'가 누적 생산 50만대를 돌파했다.

1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G-클래스는 1979년 크로스컨트리 차량으로 탄생했다. 지난 40여년 간 변화와 거듭해오면서 오프로드의 아이콘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G-클래스는 벤츠의 S-클래스 및 E-클래스와 함께 벤츠 라인업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이어온 모델 시리즈 중 하나다. 무엇보다 벤츠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시작이라고도 불린다.

2024년 생년 45주년을 앞두고 있는 G-클래스는 특유의 각진 실루엣과 감성적인 요소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른 차량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모험과 경험을 선사하며 '전설의 오프로더'로 자리매김했다고 벤츠는 설명했다.

특히 1979년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40여 년간 변함없이 클래식한 외관을 유지하며 G-클래스만의 디자인 정체성을 이어오고 있다. 강인한 박스형 실루엣과 함께, 견고한 외장 보호 스트립, 뒷문에 노출형으로 장착된 스페어 타이어, 보닛 모서리에 자리한 볼록 솟은 방향 지시등은 G-클래스를 대표하는 특유의 디자인 요소로 꼽힌다.

G-클래스는 이런 특유의 디자인과 특별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켜왔다. 또 다양한 예술작품, 쇼카(전시용 차) 등으로 발전 가능성을 넓혀왔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벤츠의 디자인 총괄 고

든 바그너(Gorden Wagener)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고(故) 버질 아블로(Virgil Abloh)가 협업해 진행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게렌데바겐(Project Gelandewagen)의 결과물인 G-클래스 기반의 예술 작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23년 2월 런던 패션위크에서는 G-클래스와 패션 브랜드 몽클레르(Moncler) 특유의 디자인 코드를 결합한 협업 쇼카 '프로젝트 몬도 G'(Project MONDO G)를 공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G-클래스는 온-오프로드를 아우르는 주행성능으로 고객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안전성과 내구성을 더해주는 사다리형 프레임바디, 경사로나 내리막길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프로드 감속 기어, 네 바퀴 가운데 하나만의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3개의 100% 디퍼렌셜 락 등 강력한 성능과 탁월한 핸들링, 주행 안전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G-클래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한국 고객만을 위한 에디션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12년 처음 출시된 G-클래스는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이와 같은 G-클래스 매니아들을 위해 G-클래스 고유의 특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AMG만의 강인한 고성능 DNA를 반영한 '메르세데스-AMG G 63'의 에디션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G 마누팩투어(G manufaktur) 내-외장 색상과 소재를 적용해 메르



오프로드의 아이콘으로 'G바겐'으로도 불리는 메르세데스-벤츠의 'G-클래스'가 누적 생산 5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벤츠가 G-클래스 한 명백을 이어 내년부터 생산하기로 한 순수 전기 오프로더에 관심이 높다. 벤츠가 쇼카 형태로 2021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던 전기 오프로더 '컨셉 EQG' 이미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세데스-AMG G 63만의 개성을 강조한 '메르세데스-AMG G 63 마그노 히어로 에디션'과 메르세데스-AMG 55주년을 기념하는 '메르세데스-AMG G 63 에디션 55'를 국내에서 각각 115대, 85대 한정 판매했다. 또 올해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를 통해 벤츠코리아 20주년을 기념한 50대 한정 스페셜 에디션 모델 '메르세데스-AMG G 63 K-에디션20'도 공개했다.

무엇보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G-클래스의 명맥을 이어갈 순수 전기 오프로더에 관심이 뜨겁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시간보다 강하다'(Stronger than Time)라는 G-클래스의 모토 아래 G-클래스의 순수 전기차 버전을 내년부터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컨셉 EQG'(The Concept EQG) 쇼카 형태로 2021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 바 있다.

순수 전기 버전 G-클래스는 기존 G-클래스의 상징적인 디자인 전통은 그대로 계승했으며, 성능 측면에서도 오프로드의 강력한 면모를 그대로 살린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4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해 뛰어난 출력, 제어력, 반응성 등 오프로더로서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추며, 차체는 강인한 사다리형 프레임으로 배터리와 통합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카카오모빌리티 '카 헤일링' 시장 선도 '맞손'

헤일링 전용 PBV·연계 플랫폼 서비스 개발 MOU...전동화·맞춤화 트렌드 확산 앞장

기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헤일링(Car Hailing, 차량 호출)에 최적화된 전용 PBV(Purpose Built Vehicle) 및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기아는 최근 양재동 본사에서 기아 수소성 사장, 카카오모빌리티 류궁선 대표를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와 '헤일링 전용 PBV 및 연계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기아는 국내 헤일링 서비스 선도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 헤일링 시장의 전동화 및 맞춤화 트렌드 확산에 앞장서고, 나아가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PBV 최고 브랜드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이동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친환경 카헤일링 표준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헤일링 전용 PBV 개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상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새로운 특화 서비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헤일링 전용 PBV 개발을 위한 특화사양 관련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기아는 이를 반영해 2025년 출시 예정인 중형급 전용 PBV 모델을 활용, 최적화된 차량을 개발 및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차별화된 차량 연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차량 운행 데이터-상태 데이터 확보 및 연동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와 카카오 T 앱, 내비 등 모바일 서비스의 원활한 연동을 위해서도 상호 협조할 계획이다.

기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신규 특화 서비스의 개발 완료 후 철저한 실증 과정을 거쳐 2025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의 혁신을 이끄는 것은 물론,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승차한 역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충전/주차 등 차량 데이터 연동 기반 파생 서

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약자 서비스, 물류, 렌터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글로벌 사업 진출도 공동 추진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하며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창립 41주년 기념 행사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지난 11일 열린 창립 기념 행사에서는 장기근속 사원 포상과 회사의 공동가치에 앞장섰거나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정희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가치를 실천하여 안전관리와 고객만족을 제고시키고, 도시가스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신규사업에 확대 적용해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해양에너지는 창립 41주년을 맞아 고객감사 SNS 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트 참여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해양에너지 로고'를 찾아, 사진을 찍은 뒤 해양에너지 공식 인스타그램(@hyenergy_official)에 공유하면 된다. 회사 CI, 순찰차량, 라인마크, 고지서에 나와 있는 로고 등을 찍어 보내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게시 및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보급 중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시회' 참가 중기 모집

전남도, 17일까지 신청...부스 임차비·통역비 등 지원

전남도가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2023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시회(ASD Market Week)' 참가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참가 희망 기업이 전남도수출정보망 누리집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9.35(+3.93)
▼ 코스닥	814.53(-7.90)
▲ 금리(국고채 3년)	3.279(+0.054)
▲ 환율(USD)	1337.00(+2.50)

(www.jexport.or.kr)에 접속해 17일까지 신청하면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6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있으며 전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국제 및 지방재 완납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이번 전시회 관련 타 수출 유관기관 지원을 받거나 타 시도 제품만 유통하는 기업, 대리 참가 기업, 세금 체납 기업은 신청에서 제한된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 임차비와 기본 장치비, 통역비, 1사 1인 100만 원 한도에서 항공료 50%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물류비, 체재비 등은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4일간 펼쳐지는 '2023 미국

추계 라스베이거스 소비재 전시회(ASD Market Week)'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소비재 전시회다.

전시회 참가를 통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지역 소매상,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과 직접 교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엔 17개 나라에서 18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했으며 3만 명이 방문했다.

전시회에 뷰티, 패션, 홈케어·인테리어, 여행·스포츠·선물·레저용품, 반려동물용품, 가전제품, 사무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가 참가한다. 단 농수산물 가공식품은 제외된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해외시장에서 제품 홍보와 수출 기회를 얻고 세계적인 기업과 연결해 국제적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백년가계·백년소공인 모집

31일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랜 기간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백년가계'와 '백년소공인'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백년가계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동일사업에서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서류·현장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지정일부터 백년가계는 3년, 백년소공인은 5년 동안 유효하며 홍보 및 성장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백년가계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와 인증현판·업체 스토리 보드를 제공받으며, 현판식, 방송·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받는다.

별도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지원과 점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고, 스마트자금 융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자부담 면제,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가점 부여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백년가계 및 백년소공인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71년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